

설날



김양평의
일본 이야기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설날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다. 설이라 하면 보통 음력 설을 뜻하고 올해는 설날이 1월 말이라 양력 설과 음력 설을 1월에 함께 쇠게 되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과 같은 음력 문화권 국가와 지역에서는 설날이 큰 명절 중 하나다. 그런데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은 공식적으로 음력 설을 쇠지 않는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1872년 1월 1일부터 음력을 폐지하고 양력만 쓰고 있어 음력 설을 쇠는 풍습은 오키나와 등 일부 지역에만 남아있고 공식적으로는 양력 설만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음력 설이 공식적으로는 사라졌다고 하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은 변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12월 31일 저녁에 메밀국수를 먹는 관습이 있다. 이를 토시코시소바(年越しそば)라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보면 ‘해를 넘기는 메밀면’이다. 토시코시소바를 먹

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먼저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메밀면의 물성과 같이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다음으로는 잘 끊어지는 메밀면의 특성과 같이 지난해 악연과 악재를 해가 가기 전에 끊어버리기 위한 것으로 자정이 지나기 전에 먹는다고 한다.

토시코시소바를 먹으며 TV를 켜면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는데 NHK의 흥백가합전(紅白歌合戦)은 1951년 시작해서 지난해 75회를 기록하며 일본의 국민 방송으로 자리를 잡았다. 여기에는 매년 일본에서 최우수 가수들뿐만 아니라 해외 가수도 초청하고 있으며, 한국 출신 가수도 이전부터 상당수 출연하고 있다. 그리고 자정이 되면, 일본의 모든 절과 신사에서 제야의 종을 108번 타종한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거나 고통스럽게 하던 백팔번뇌를 종소리로 사라지게 해준다는 것으로 토시코시소바의 유래와도 일맥상통한다.

자정이 지나면 처음으로 하는 일반적인 인사가 “새해를 맞이해서 축하합니다。(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이다. 젊은이들이나 SNS 등에서는 ‘아케오메(明

けおめ)’라고 축약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는 연말부터 음력 설까지 약 한 달가량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지만, 일본은 자정을 기점으로 인사말이 달라져 1월 초에만 새해 인사를 한다.

자정을 넘겨 새해가 되면 일본인들은 절이나 신사에 참배하러 가기 위해 곧바로 외출 준비를 한다. 신년에 처음으로 사원에 방문해서 참배하는 것을 하츠모데(初詣 (はつもうで)) 혹은 하츠마이리(初参り (はつまいり))라고 하는데 유명한 사원뿐만 아니라 집 근처에 있는 규모가 작은 사원에도 자정부터 새해 첫날까지 연중 최고의 인파가 모인다. 이 참배의 목적은 지난해 무사히 보낸 것을 감사하고 새해에도 평안하고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데 있다. 참배하면서 많은 사람이 재단 앞에 놓인 헌금함에 오 엔(五円; 오엔)짜리 동전을 던져 넣는데, 이는 신과 연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의 관공유인 “ご縁(고엔)があるように”와 같은 발음이기 때문이다. 물론 5엔 동전을 던진 후에 마음 가는 대로 더 많은 돈을 넣는데 이는 그 사원의 1년 수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이너 스티키 스팟’ 속 코스피



기지 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를 ‘이너 스티키 스팟(In a sticky spot)’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넓은 5차선 도로가 갑자기 1차 도로로 좁아지면서 교통 체증이 발생한 상황을 비유한 것으로, 경제적으로는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이전처럼 빠르고 강한 성장이 어려운 복잡한 국면을 뜻한다. 이러한 경제 상황은 한국 증시, 특히 코스피의 흐름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지난해 ‘검은 월요일’ 이후 박스권에 갇혔던 코스피는 올해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고점인 2890대를 다시 돌파하기에는 여러 제약 요인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올해 코스피가 반등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국내 증시가 밸류에이션 저점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저가 매력이 부각됐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스피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코스피 전체 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코스피는 대형주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코스피는 약 9.6% 하락했으며, 삼성전자는 32.23%의 낙폭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을 감안했을 때, 대장주의 추락이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수익률에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역시 ‘이너 스티키 스팟’에 갇혀 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은 존재하지만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이 과거처럼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24만 1000원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경신했으나 현재는 20만원대에서 낙폭을 반복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달 10일 종가는 5만5300원으로 2023년 마지막 거래일 종가 7만8500원보다 낮으며, 52주 최고가인 8만7800원에 비해서도 약 37% 낮은 수준이다.

코스피는 글로벌 경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복잡한 전환 국면에 놓여 있다. 회복의 신호는 나타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자 이워질 때, 박스권을 넘어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godhe@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14일 (음 12월 15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하는 날이다. 48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변화가 없다. 60년생 진실은 밝혀져 들수록 때가 묻는다. 72년생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니 각자 소지품 주의. 84년생 길고 짧은 것은 대박아나다.
- 소** 37년생 우물에서 송능 찾지 말고 순서대로. 49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한다. 61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뭉치 않는다. 73년생 슬픔도 곧 지나가거늘. 85년생 동시호반이라 흉내만 낸다고 다 미인이 아니다.
- 호랑이** 38년생 재혼을 한 지 오래 지나도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 50년생 식구가 많으니 돈 문제로 근심도 많이 생긴다. 62년생 최선의 리더십은 솔선수범이다. 74년생 말보다 행동으로 시작. 86년생 부부간에도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
- 토끼** 39년생 좋은 일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라. 51년생 지방으로 가는 이사는 지인의 조언을 수용하는 게 좋다. 63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 75년생 나는 바담 풍해도 너는 바람 풍하고 말해보라. 87년생 평 대신 닦이다.
- 용** 40년생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떠나도 거칠 것이 없다. 52년생 낫말은 새가 들고 밤말은 쥐가 들으니 주의. 64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니 조심. 76년생 낫 놓고 기억 자도 모르는가. 88년생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해보는 것도.
- 뱀** 41년생 새로운 인연을 만나니 근심이 더 쌓인다. 53년생 뜻은 원래하나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65년생 신용은 만인이 걸어가야 할 지표일 것. 77년생 한번 레일을 벗어 나면 내 코가 석자가 된다. 89년생 종일 고단하나 재물은 들어온다.
- 말** 42년생 고토삼굴(狡兔三窟)이니 닥칠 위기를 미리 준비. 54년생 포기하지 않는다면 해내게 된다. 66년생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린다. 78년생 누워서 떡 먹는다 것이 쉽지만은 않다. 90년생 물건을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했는데.
- 양** 43년생 조상님의 유산이 알아보지 못한 보배 화씨지벽(和氏之璧)이다. 55년생 배우자에게는 가리고 아옹하지 마라. 67년생 운명에 편승하는 것도 운의 흐름. 79년생 시덕 홍보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 91년생 거울은 혼자 웃지 않으니 살피자.
- 원숭이** 44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다. 56년생 욕심이 지나치니 작은 성과는 눈에 안 들어온다. 68년생 지금부터 노후를 준비하자. 80년생 달걀로 바위 치기보다는 하나씩 일구어 나가도록. 92년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먹는 것에 신경 쓰자.
- 닭** 45년생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인생사. 57년생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으면 얻게 된다. 69년생 가진 돈을 점검하고 지출을. 81년생 성공 뒤에는 다들고 연마하는 노력이 동반. 93년생 새로운 사업은 달면 삼고 쓰면 내뱉는 결과를 낳는다.
- 개** 46년생 물이 너무 많으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 58년생 자신의 건강과 안부를 챙겨라. 70년생 익숙한 일도 신중하게 대하라. 82년생 불명하다 보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상황이 된다. 94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는 형국.
- 돼지** 47년생 반려 아기를 키우려면 정성과 돈의 지출이 늘어나니. 59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71년생 원하던 것을 손에 넣는다. 83년생 금강산도 식후경이니 도시락은 싸가도록. 95년생 이성으로 상사병(相思病)이 생길 수 있다.



김상회의四季 단정의 경계선

사람들은 상(想)에 지배받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인식이 한 번 각인 되면 계속 그 생각의 노예가 된다. 요즘 초기 경전인 니까야를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초기 경전 언어는 석가모니부처님 당시 그 주요 활동무대였던 동북 인도의 일반 대중어였던 팔리어로 설해졌다고 한다. 그 팔리어로 산나(sanna)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풀 것 것이 상(想)이다. 사실 세상은 온통 산나 투성이이다.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예단하기에 그에 따른 행동과 말이 나오고 갈등과 번뇌가 생기고 그래서 세상은 고통의 바다가 된다. 공황장애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도 내 생각과 다른 타인들로부터의 견해나 악성 댓글로 인해 마음이 묶여버렸다. 몸과 마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마음이 힘들면 몸은 그야말로 로봇처럼 조종하는 마음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생각으로 그릇된 견해로 단정을 내리게 되면 이런 괴로움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단정의 오류는 반드시 일상을 사는 생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집적하여 가공하고 판단하는 과정에도 있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사주 감명이야말로 정성적 통찰이 요구되는 인문화학이라고 보는 것이다. 생년월일 여덟 글자를 구성하고 있는 천간과 지지의 각각의 기본적 성질이 있으나, 이 기본적인 요소들이 대운과 세운을 만나서 반응하며 펼쳐지는 모양새는 신세계가 펼쳐지는 것과 같다. 마치 산소와 수소라는 각각의 원소가 따로 있을 때는 그저 하나의 원소적 특질만 있지만, 두 원소가 만나게 되면 물이라는 전혀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충(衝)이라 해서 무조건 꺼려야 할 다 같은 충이 아니고 합(合)이라 해서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다. 단정의 위험을 경계해야 할 또 하나의 분야인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결합형 �도쿠 153문제
컬러 �도쿠 110 120문제

할인도서

9	8	9	2	8	1	1	7	6
6	7	1	9	1	6	9	2	8
1	2	7	6	8	5	1	9	6
8	6	9	1	7	9	2	6	1
7	1	2	8	9	6	1	2	9
1	9	6	6	2	1	8	9	7
9	6	1	7	6	2	9	8	1
6	9	1	2	9	1	8	7	1
2	1	8	1	9	7	6	9	1

9	1	1	6	2	8	6	9	7
1	9	6	8	1	9	7	6	2
6	8	7	6	9	2	1	9	1
1	7	9	1	6	8	1	8	9
1	2	6	9	8	1	9	7	6
8	6	9	7	1	6	2	1	9
6	1	8	9	7	1	9	2	6
7	9	1	2	8	9	6	2	8
9	6	2	1	9	7	8	6	1